

광주 영재교육원 올 가이드

이맘 때, 입시로 열병을 앓는 학생들은 고3이나 재수생 뿐이 아니다. 과학이나 수학, IT 분야의 영재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광주 시내 영재교육원에는 해마다 2천여명이 넘는 초·중학생들이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정원 외의 학생들은 고배를 마신다. 광주에 있는 영재교육원은 전남대학교 영재교육원과 광주동부·서부교육청 영재교육원, 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정보원 부설 IT영재교육원 등 모두 5곳.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재교육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까. 현재 전남대 영재교육원은 2008학년도 원생 모집을 마쳤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각 영재교육원에 대해 알아본다.



광주시교육정보원 부설 IT영재교육원에서 기본과정을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창의성 교육' 수업을 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대 초·중등 과정 142명 선발...전공교수 직접 강의

◇전남대 영재교육원

지난 1998년 설립된 현재 광주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수학과 과학 분야의 전공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의 경우 중등 과정의 수학(32명),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정보과학 각 분야별 15명씩), 초등의 수학(20명), 과학(15명) 과목 142명 정원에 모두 2천64명이 몰려 평균 14.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초등 수학에는 20명 모집에 814명이, 과학에는 15명 모집에 426명이 지원해 각각 40.7대1과 28.4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지난 ▲2004년 8.4대1 ▲2005년 11.7대1 ▲2006년 12대1 ▲2007년 12.5대1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영재교육원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 곳을 수료했을 경우 과학고 등 특

■전남대 영재교육원

2단계 전형 선발...올 경쟁률 14대1 달해

중등 3년차 사사교육반 교수와 1대1 수업

목고는 물론 대학 입시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남대 영재교육원은 2단계 전형으로 선발한다. 1차에서는 지원자들의 기초학력 수준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반반씩 본다. 지원자 격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 수준의 과학이나 수학 문제들이 출제된다. 중등과정의 경우 초등 6년에서 중등 1년까지 재학생으로 상위 5%에 드는 학생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초등과정은 초등4~5학년 사이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각종 경시대회에서 동상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면 학교장 추천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다.

2차 시험은 과학의 경우 창의적 관찰이나 실험 설계가 가능한지를 본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을 넣었을 때 볼록렌즈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 담긴 컵과 실제 볼록렌즈를 관찰한 뒤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알거나 창의적으로 설명하는지가 관건이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1년간 전남대 영재교육원에서 각 과목별로 심층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초등 과정 수학에서는 정수론, 암호학,



전남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분자 유전학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형탐구,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등 수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배운다. 과학은 과학적 의사소통을 통한 탐구 실험과 관찰 활동 등 영역별 심화학습을 하게 된다.

초등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중등 과정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중등 과정은 다시 ▲기초반(1년차) ▲심화반(2년차) ▲사사교육반(3년차) 등 3단계로 운영된다. 기초반 수료 학생 중 50~70%가 심화반으로 가게 되고, 전공 교수와 1대1 수업이 가능한 사사교육반에는 각 반별로 3~4명만이 선택된다.

현재 수학의 사사교육반 4개반과 과학의 과목별 4개반 등이 운영 중이다. 사사교육반까지 수료한 학생들은 과학고 등 입시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박종원(과학교육학부 교수) 전남대 영재교육원장은 "자녀가 똑똑해서 영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고, 이런 현상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영재교육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 시험 합격에 목을 매는 일

은 좋지 않다. 여유 있게 과학을 즐기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광주시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광주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각각 80명, 100명씩을 선발해 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초등 4~5학년이다. 올해는 영재성 검사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10일 학문적성 검사를 벌이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16일 발표한다. 올해 동부교육청의 경우 160명 모집에 378명이 지원해 2.4대1, 서부교육청은 200명 모집에 459명이 지원해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재성 검사는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영재성을 이루는 요소인 창의성과 지적능력(언어능력, 수리능력, 공간지각능력 등)을 특정 교과 영역의 지식이나 기능을 초월해 측정하게 된다. 영재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뽑는 학문적성 검사와 과제수행능력평가를 수학·과학 등 과목별로 실시한다.

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학·영어 등 세 과목에 걸쳐 진행된다. 중학교 1학년은 4학급 80명, 2·3학년은 2학급 40명으로 구성된다. 학문적성 검사와 과제수행능력평가 등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올해 경쟁률은 4.4대1이다.

각 학년에서 수료자 중 종합성적(수학·과학·산출물·출결의 합산 성적) 상위 50% 이내인 학생들은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모집 인원의 50%를 영재교육원 출신으로 뽑게 된다. 1학년은 1일 3시간 주 2회, 2·3학년은 주 3회 운영된다. 여름방학 때는 30시간의 집중 수업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실험 실습, 토의·토론 학습 등 과목별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도받는다.

■광주시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동·서부교육청, 초등생 180명씩 뽑아

과학교육원, 적성·과제수행 평가 선발

교육정보원 부설 IT영재교육원은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기본과정에 4반 60명, 학년에 관계없이 초·중·고 학생들의 특별과정 1반 15명 등 75명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260명이 지원해 경쟁률 3.5대1을 기록했다. 기초과정에서는 주 2회 하루 2시간씩 컴퓨터개론,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수학, 창의성 교육, 프로젝트 등 6개 과목을 심화과정은 창의성 교육,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산수학 등 4과목을 배운다.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김양근 장학사는 "과학고나 특목고의 인기가 해마다 오르는 것처럼 영재교육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도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재교육원 수료가 상급 학교의 입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만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학생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적성이 있는지,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나 교사들과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woo DC air conditioning units. Features include: '난방비 절감율 83% 효율' (83% heating cost reduction efficiency), '내우냉·난방기' (All-in-one heating/cooling unit), and '구입비 부담없이 렌탈로 빌려쓰고 절감된 난방비로 무료사용 기대효과' (Rental purchase with expected savings). Includes a table of specifications for various models.

Advertisement fo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 Eiplyu Public Broker). Services include: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평가' (Market trend prediction and asset consulting),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Land/building acquisition in Gwangju/S. Jeolla), and '분양·임대' (Sales/leasing). Lists office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